

선진국 수준의 방재기관으로 도약



이 상 규 이사장

지난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확정 발표된 후 7년의 준비 끝에 개최된 서울올림픽대회는 실로 12년만에 동서 양진영의 160개국 1만3천6백여 선수들이 참가한 사상 최대규모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서울올림픽이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동서의 대화합이란 측면에서 그 어느 올림픽에 비해 크게 주목받으면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물론 우리 국민들조차 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전세계인의 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위대함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협회도 그동안 방재전문기관으로서 사고없는 안전한 올림픽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림픽 선수촌과 기자촌 아파트 및 관련시설을 비롯, 각종 경기장 등에 대해서는 지난 86년도부터 올림픽 개최 직전까지 건축전의 철저한 기술지도와 건축후 안전점검을 여러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올림픽대회와 관련이 있는 호텔, 백화점, 시장 등 특수건물에 대하여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이밖에도 기본업무인 특수건물의 안전점검과 보험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충실히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화재위험이 높은 일부건물에서는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부분의 설치상태가 만족한 상태가 되지 못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수건물소유주 여러분께서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자랑스런 국민의 일원으로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한다는 뜻에서도 소방시설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아울러 불량한 방재시설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협회는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시설개선자금의 대여와 기술지도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협회 부설 방재시험소에서도 그간 시험업무의 기반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지난 3월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선박용 방화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데 이어 지난 9월에는 국립건설시험소로부터 건축구조부인 벽, 보, 바닥, 지붕 등의 내화구조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국립건설시험소에서만 실시하던 공장심사와 내화성능시험을 저희 방재시험소에서도 대행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 방재시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착실히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결과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선진국 수준의 종합방재전문기관으로도 약하기 위해 계속 정진할 것이며 재난없는 안정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전체 임직원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8. 10. 1 이 상 규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